

벤투호 오늘 몰도바와 모의고사 K리거 생존 갈림길

월드컵 최종예선 2연전 해외파 6명 합류 예고
선수단 내 긴장감 팽팽... 선발 명단 변화 없을 듯
벤투 감독 "최종예선 명단 22일 훈련 이후 결정"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을 조기 확정 지으려는 벤투호가 다시 전력 점검에 나선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1일 오후 8시(한국시간) 터키 안탈리아의 마르단 스타디움에서 몰도바와 친선경기를 치른다.

대표팀은 오는 27일 레바논, 2월 1일 시리아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7·8차전 원정경기를 대비해 지난 9일 출국, 터키에서 답습을 해왔다.

이번 몰도바전은 지난 1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아이슬란드전에 이은 대표팀의 새해 두 번째 경기다.

몰도바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81위(한국 33위)로, 월드컵 본선에 오른 적이 없는 나라다.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도 1무 9패(5득점 30실점)로 F조 6개국 중 최하위에 머물러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

몰도바는 18일 우간다와 치른 친선경기에서는 2-0으로 앞서다가 페널티킥으로 두 골을 내주고는 2-3으로 역전패했다.

우리나라는 몰도바와 2018년 1월 터키 전지 훈련 때 딱 한 번 대결해 김신욱의 골로 1-0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이번 경기도 승패보다는 대표팀의 전력을 다지고, 벤투호가 추구하는 스타일에 맞는 선수를 가려내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월드컵 최종예선 2연전에 동행할 선수를 추리는 시험대라 선수단 내 긴장감은 팽팽하다.

현재 훈련 중인 선수는 총 27명이다. 이 중 골키퍼 김승규(가시와 레이솔)와 중앙수비수 권경원(감바 오사카)을 제외한 25명이 K리그 소속 선수들이다.

아이슬란드, 몰도바전은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기간에 열리는 경기가 아니어서 벤투호의 해외파 핵심 전력들은 합류하지

못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17일 김민재(페네르바체), 정우영(알사드), 정우영(프라이부르크), 황인범(루빈 카잔), 이재성(마인츠), 황의조(보르도)를 이번 월드컵 최종예선 2연전에 부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상에서 회복 중인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울버햄프턴)의 참가는 일단 보류한 채 상황을 지켜본 뒤 발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벤투 감독은 월드컵 최종예선을 치르는 동안 25명 남짓을 선발해 대표팀을 운영해왔다.

해외파 합류가 예고된 만큼 현재 소집멤버 중 일부는 몰도바와의 친선경기가 끝나면 귀국 길에 올라야 한다.

제외되는 선수 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6명은 이번 월드컵 최종예선 2연전을 함께할 수 없다. 손흥민, 황희찬의 회복 상태에 따라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주전 골키퍼 김승규와 신종코로 나바이러스(김영중(코로나19) 확진 판정)를 받았다가 다시 대표팀에 합류한 권경원보다는 25명의 K리거 중에서 짐을 쌀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아이슬란드전에서는 17명이 그라운드를 밟

았다.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데뷔전을 치른 김진규(부산)와 엄지성(광주)은 골맛까지 보면서 벤투 감독 앞에서 잠재력을 드러내 보였다.

그런가 하면 역시 처음 대표팀에 발탁된 김대원(강원), 고승범(김천), 최자복(성남)을 비롯해 아직 A매치 경험이 없는 조영욱(서울) 등은 아이슬란드전에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A매치 2경기를 뒀 이동준(울산)도 결정했다.

이들로서는 마지막 모의고사가 될 몰도바전을 베풀 수밖에 없다.

벤투 감독은 20일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공개 인터뷰에서 "아이슬란드와의 경기에서 시즌 초반임에도 우리 플레이 스타일을 발전시켜 나갔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몰도바와의 경기에서 더 발전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벤투 감독은 "아이슬란드전에선 결과도 중요했지만,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선수들의 태도도 좋았다. 새로운 선수들이 대표팀에 적응하도록 도운 것도 소곡이었다"며 "다음 경기에서도 선수들이 팀에 더 녹아들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국 축구대표팀이 21일 오후 8시(한국시간) 터키 안탈리아의 마르단 스타디움에서 몰도바와 친선경기를 치르는 가운데 엄지성(광주FC)이 훈련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인스타그램



멀티골 터진 토트넘 19일(현지시간) 영국 레스터의 킹 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대 레스터 시티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스티븐 베르흐베인(가운데·25)이 팀의 3번째 골을 넣고 있다. 베르흐베인은 1-2로 밀리던 상황에서 후반 추가시간 2분 사이에 멀티 골을 넣어 팀의 3-2 승리를 견인했다. /로이터=연합뉴스

광주FC 2022시즌 주장 안영규 선임

팀내 구심점 역할 기대
부주장 김중우·이순민

광주FC가 2022시즌 신임 주장에 안영규(33)를 선임했다.

금호고를 졸업한 안영규는 수원과 대전 등을 거쳐 2015년 광주에 입단, 첫 해부터 33경기를 소화하는 등 팀의 견고한 수비를 책임진 에이스로 맹활약했다.

3년만에 다시 광주 유니폼을 입게 된 안영규는 통산 195경기 4골 4도움을 기록한 프로 11년차 베테랑이다.

안영규는 뛰어난 리더십과 강력한 카리스마는 물론, 활발한 소통과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주며 2018년에도 주장을 맡아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에 기여하기도 했다.

안영규는 "2018시즌에 이어 올해도 주장직을 맡게 됐다. 완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에 더 책임감이 든다"며 "광주는 승격을 두 번이나 한 팀이

다. 선수단 모두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만큼 하나로 똘똘 뭉쳐 다시 승격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부주장은 미드필더 김중우(29)와 이순민(28)이 맡는다. 지난 시즌 팀에 합류한 김중우는 부드러운 볼터치와 함께 날카로운 패스를 선보이며 19경기에서 5골 2도움을 기록, 팀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는 자타공인 에이스다.

뛰어난 실력뿐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로 베테랑과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7년 광주에 입단한 이순민은 그라운드에서는 왕성한 활동량과 현신적인 플레이를, 팀 내에서는 굵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살림꾼으로 불린다.

몇 시즌 간 주전 자리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는 자세로 묵묵히 팀에 헌신하며 지난 시즌 팀에 없어서 안될 선수로 올라서는 등 젊은 선수들에게 많은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조혜원 기자



20일 광주FC 주장단들이 별교스포츠클럽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부주장 김중우, 주장 안영규, 부주장 이순민.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3년 만에 열리는 프로배구 올스타전 1분 만에 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리는 프로배구 올스타전 입장권이 예

매 시작 1분 만에 매진됐다.

20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연맹 통합티켓에매처에서 시작된 올스타전 2,679장의 표가 1분만에 모두 팔렸다.

연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팬들의 안전을 위해 올스타전의 입장 관중 수를 페퍼스타 디퓨수용 규모의 50%로 제한했다.

연맹은 모처럼 열리는 올스타전을 맞아 다채로운 볼거리를 준비했다. 올스타 선수들이 22일 광주 유스네 배구 선수들을 찾아 만나

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며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여자 배구 레전드와 2020년 도쿄올림픽 여자 대표팀 4강 멤버들과의 뜻깊은 만남이 올스타전을 빛냈다.

'소원을 말해봐' 이벤트를 통해 선수들은 팬들의 갖가지 소원을 들어주고, 팬들이 지어준 별명이 담긴 유니폼을 입고 올스타전 코트를 누닌다.

2021 Mnet 스트릿 무먼 파이터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댄스 퍼포먼스 그룹 '홀리뱅'이 공연으로 경기장을 후끈 달구고 대표 강서버를 뽑는 서브 콘테스트도 이어진다.

한편 올스타전은 23일 오후 3시 여자부 신생구단 페퍼저축은행의 홈인 광주 페퍼스타 디퓨에서 벌어진다. /연합뉴스

KIA 내달 1일부터 스프링캠프 돌입

3일 훈련 1일 휴식 체제
3월부터 8차례 연습경기

KIA 타이거즈가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합평 KIA 챔피언스 필드에서 스프링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스프링캠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다시 국내에 차려졌으며, 김중국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14명, 선수단 40명 등 54명이 참가한다.

캠프 선수단은 투수 20명, 포수 4명, 내야수 9명, 외야수 7명으로 구성됐다.

2022년 신인 가운데 투수 최지민·강병우·김찬민, 내야수 김도영·윤도현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선수들은 '3일 훈련 1일 휴식' 체제로 체력 및 기술 훈련과 전술 훈련에 집중하며 2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 동안 합숙하며 팀워크를 다질 예정이다.

이어 3월에는 합평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대구, 경남 기장군에서 8차례의 연습경기를 치른다.

퓨처스 선수단도 2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정명원 감독의 지휘 아래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스프링캠프를 차린다.

코칭스태프 12명, 투수 18명, 포수 3명, 내야수 7명, 외야수 13명 등 총 53명이 참가한다.

한편 KIA는 추위와 악천후 속에서도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게 챔피언스 필드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방한 및 방풍 시설을 완

비했다.

◇합평 스프링 캠프 참가자 명단

▲감독=김중국

▲코치=진갑용 서재용 광정철 최희섭 이범호 김민우 이현곤 조재영 김상훈 배요운 정상욱 윤인득 유재민

▲투수=양현종 임기영 이의리 윤준현 한승혁 이준영 장현식 전상현 정해영 놀린 로니 홍상삼 이준형 유승철 박건우 이승재 장재혁 최지민(신인) 강병우(신인) 김찬민(신인)

▲포수=김민식 한승택 신범수 권혁경

▲내야수=김선민 박찬호 류지혁 김태진 황대인 오정환 박민 김도영(신인) 윤도현(신인)

▲외야수=최형우 나성범 소크라테스 이우성 김호령 김석환 고종욱 /조혜원 기자

타이틀 방어 나선 김시우 "나홀간 공격적 플레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디펜딩 챔피언으로 출전하는 김시우(27)가 샷 감각이 좋다면서 나홀 내내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시우는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20일(한국시간) 인터뷰에서 "최근 대회에서 전체적인 샷 감각은 좋았다"면서 "이번 대회도 샷이 중

요하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 퍼트만 잘 된다면 원하는 성적이 나올 듯 싶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많은 버디가 필요한 코스다. 스코어가 잘 나오기 때문에 나홀 동안 항상 공격적으로 플레이해야 한다"는 김시우는 "톱10 입상을 염두에 두고 기회가 온다면 우승까지 바라볼 수



김시우

있도록 1, 2라운드부터 집중하려 한다"고 초반부터 치고나간다는 전략을 내비쳤다.

그는 "성적이 잘 나오는 코스가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플레이하면 좋은 찬스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